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3/28℃ 목포 23/27℃ 여수 24/27℃

단기 4342년 (음력 5월 2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18호 1판 2009년 7월 14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 식당 주방을 공개합니다"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잔반 재사용 점검에 나선 광주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등이 요리 및 잔반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대형 TV화면을 보고 있다. 이 가게는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 조리 모습을 공개해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 조례안 통과

개발 논의 본격화…환경단체 반발 진통 예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11개월째 표류해 왔던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안)이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 등 무등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에 맞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18명 전체가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0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광주시장에게 이송됐으며 15일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또 사업자 선정과 관광수입 운영 등도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시는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시 환경·관광·도시계획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위원으로 시의원과 조경·도시계획·환경·관광 분야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게 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 조례 폐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제정된 무등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유권자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무등산 개발 조례 제정 반대 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무등산 조례 강행처리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무등산 파괴를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함께 조례 제정 찬성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S '퀸'

지은희 LPGA 역전 우승

'미키 마우스' 지은희(23·휠라코리아·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최고의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정상에 우뚝 섰다. 〈관련기사 18면〉

지은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헴의 사우컨밸리 골프장 올드코스(파71·6천7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8번홀(파4)에서 6m짜리 버디 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선두에 2타차로 뒤진 채 4라운드를 맞은 지은희는 합계 이븐파 284타로 쿵(1오버파 285타)을 1타차로 따돌렸다.

'남은 반찬' 줄이기 고심 속 곳곳 '푸짐한 반찬'도 여전

광주 음식점 잔반 단속 동행 취재해 보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데 기본 반찬마저 적게 담아 내놓으면 손님들이 싫어할 게 뻔합니다. 손님 발길이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라고요."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영세 분식점. 광주시 동구청 위생과 박정휘 주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미경(여·43)씨 등 2명이 남은 음식물(잔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5평 규모의 G분식점에 들어서자 주인 김모(여·59)씨의 불평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7면〉

잔반 점검반을 맞는 영세 분식점 주인은 '왜 하필 점심시간에 위생점검을 하는가'라는 떨떠름한 표정이 역력했다.

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발효됨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이날 합동 점검에 나섰다. 잔반 재사용 점검반은 이날 점심시간에 5곳의 식당을 점검했다.

박 주임이 G분식점에 들어선 시각에 바로 옆 E분식점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유지나(여·33)씨 등 2명이 방문했다. 유씨 등이 소속 신분증을 꺼내보인 뒤 식당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서자 한 구석에 미역무침과 깍두기 반찬 등이 구분돼 담겨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유씨 등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업주가 재빨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바람에 영업 정지 등의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씨는 "손님에게 낼 반찬 말고 주방 구석진 곳 바닥에 별도로 모아둔 반찬이 있었으나 미처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지 못했다"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치워버리는 등 발빼하면 눈으로는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M음식점. 신분증을 꺼내보인 뒤 주방에 들어간 점검반은 먼저 남은 반찬이 어디로 모이는지 확인했다.

보쌈과 냉면 등을 판매하는 300석 규모의 이 대형 식당 주방의 위생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20여 분간의 점검에도 잔반 재활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자 단속반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두 번째로 찾아간 식당은 전국적인 체인점 형식의 한 보쌈 전문점인 N식당. 첫 번째 식당에서 이뤄졌던 방식대로 단속이 진행됐으나 이 식당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체인점 점장은 "본사 차원의 위생 점검이 월 1회 이상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200㎏에 달해 기본 반찬을 6가지에서 5가지로 줄이거나 반찬을 적게 담아내는 등 가게차원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단속에 앞서 한 달 전부터 5개 구청 위생과 직원 등을 통해 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대해 관내 1만8천여개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뒤 일제 점검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잔반 재활용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EU FTA 협상 타결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관련기사 3·8면〉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도출해 기쁘게 생각한다. 법률검토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조기에 가서명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구두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유럽 순방은 여러 정상들과 만나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면서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EU FTA가 되면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에도 신종플루 3명

격리 치료 받고 완치

전남지역에서 3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

13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 플루 확산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호주와 중국, 필리핀 등을 다녀온 A씨 등 3명이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이들은 귀국 당시 공항의 발열감시 장치에 의해 신종 플루 의심 환자로 판명돼 역학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신종 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보건당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완치해 귀가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역별 대규모 행사 개최와 관련해 방역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4000

U대회 '킹'

광주시청 김덕현 멀리뛰기 金

광주시청 김덕현(조선대대학원·사진)이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를 3위로 끌어올리는 눈부신 금빛도약을 펼쳤다. 〈관련기사 18면〉

김덕현은 지난 12일 밤(한국시간) 베오그라드 FC레드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멀리뛰기에서 8m 20을 기록,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김덕현의 금메달 1개 추가로 한국이 금메달 21개를 기록, 일본(금메달 20개)을 3위에서 끌어내리고 종합 3위를 기록하는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